

고창군·LH “터미널을 핫플레이스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협력
군, 2동 건물 연결 랜드마크로
LH, 공영주차장 부지에 임대아파트

고창군과 LH가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LH의 참여가 공식화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랜드마크 건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창군은 지난 22일 고창군청에서 심덕섭 군수와 조만규 군의장 및 군의원을 비롯해 송영환 LH공사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공사와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사업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LH의 협약 참여는 후보지경영투자심사, 주택경영투자심사 등 까다로운 내부심의 절차가 모두 완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공공개발과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사업성이 인정된 셈이다.

협약에 따라 터미널 복합건물과 공동주택을 고창군과 LH공사가 각각 추진하면서 사업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군은 2동의 건물을 유기적으로 연결, 청년들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핫플레이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새 터미널 복합건물의 조감도가 공개되고 임시터미널 운영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고창군과 LH의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사업시행 업무협약’에서 심덕섭(왼쪽) 군수와 송영환 LH지역본부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고창군 제공>

LH는 복합터미널 맞은편 공영주차장 부지에 임대아파트 21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급면적도 36㎡(16평), 46㎡(20평), 55㎡(23평), 84㎡(32평)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 LH와 유기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고창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요 성장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특산품 ‘복분자’ 잔류농약 안전성 우수

농기센터, 농협 5곳 무작위 수거
463개 성분 분석 ‘기준치 적합’

고창에서 재배·생산되는 복분자의 잔류농약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역 5개 농협에서 수매 중인 복분자 78점을 무작위로 수거해 잔류농약 463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78점 모두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분자는 세척 없이 섭취하는 대표 과실로 수확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2022년부터 매년 수매 복분자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건의 부적합 사례 없이 모두 허용기준 이내 또는 불검출 결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잔류농약 분석장비 4대를 포함한 첨단 검사장비 45종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지난해에만 773건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다.

복분자를 포함한 농산물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수확 1~2주 전 500g의 시료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관계자가 임의 수거된 복분자의 잔류농약 성분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를 채취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주 이내 통보된다.

오성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농산

물이 소비자에게 믿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전 안전성 검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횡단보도 대기시간 안내해 교통사고 예방

남원시, 요천로 일대 스마트 시스템 도입…향후 확대 설치 검토

남원시가 시민 보행 편의성 증진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대기시간 안내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가 신호 대기 중 적색·녹색 잔여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신호등이다. 신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무단횡단을 예방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남원시 주요 횡단보도는 적색 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는데 불편함을 느끼거나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요천로 일원에 스마트 신호등을 시범 설치 후 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기 시간을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이 시스템은 보행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기다림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보다 여유 있는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신호등 설치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보행 중 안전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특산품 백향과 특별전 연다

한식진흥원서 9월 14일까지 가공식품 판매·쿠킹클래스 등 진행

남원시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패션프루트’로 알려진 지역 특산물 ‘백향과’를 홍보하는 특별전을 열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의 국내 K-푸드(FOOD) 핵심공간 한식진흥원에서 ‘One the Namwon 백향과 한 모금, 남원 한바퀴’를 주제한 특별전이 열려 9월14일까지 이어진다.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난 남원 백향과를 활용한 상설 전시로 소비자에게 백향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전시다.

백향과에 대한 소개와 가공 상품, 굿즈 등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가공 제품 시식과 함께 백향과를 활용한 쿠킹클래스도 진행된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쿠킹클래스는 보호자를 동반한 1~3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백향과 설치’와 ‘강정 맥스대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신청은 한식문화공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농업인안전보험료 80% 지원

정읍시가 폭염 속 영농현장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뿐만 아니라 여름철 대표적 건강 위협인 온열 질환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다.

가입 시 의료비 일부와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고온 속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농업

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15세~80세에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고 시는 지원사업에 따라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이 빈번한 때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2차 접수

1인 年 15만원…11월까지 신청

정읍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 2차 발급이 시작됐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연극·뮤지컬·콘서트 등 공연 및 미술·전시 관람비를 1인당 연간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2006년생 청년이다. 신청은 협력 예매처인 NOL티켓(옛 인터파크)이나 예스24에 회원 가입한 뒤 ‘청년문화예술

패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2차 발급은 선착순 186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앞서 1차 발급은 5월31일 종료됐다.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의 금액은 7월 1일자로 회수 조치됐다. 이에 따라 1차 신청자와 지원금이 회수된 이용자는 2차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발급 신청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 가능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